

(8) 옥계서원(玉溪書院)

1821년(순조 21)에 정지년(鄭知年)·정승복(鄭承復)·정사준(鄭思竣)·정사횡(鄭思竑)·정빈(鄭•)·정선(鄭愼) 등 경주 정씨 일문을 봉안하는 서원으로서 순천의 남쪽 장천리에 세웠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다. 1868년에 훼손당하였다가 1953년 현재의 연향동 명말마을에 복설하였다 한다.

정지년(1395~1462)의 자는 유영(有永), 호는 노송정(老松亭)으로 1438년(세종 20)에 문과에 급제하여 삼사의 관직 등을 역임하였다. 수양대군이 단종을 폐위시키고 왕위를 찬탈하자 관직을 버리고 산 속에 은둔하여 학문연구에 몰두하였다.

정승복의 자는 경윤(景胤), 호는 옥계(玉溪)로서 정지년의 현손이다. 1544년(중종 39)에 문과에 급제하여 이후 여러 벼슬을 거쳤다. 을사사화가 일어나자 관직을 버리고 현 순천시 옥천동으로 퇴거하여 스스로 장계거사(長溪居士)라 칭하고 산수를 벗삼아 학문을 연마하였다. 서원의 이름은 그의 호에서 연유한 것이다.

정사준은 정승복의 아들로 자는 근초(謹初), 호는 성은(城隱)이다. 무과에 급제하였고 임진왜란 때 충무공의 종사관으로 광양싸움 등에서 공을 세웠다. 또 정유재란 때에는 군량의 조달에 공을 세우기도 하였다.

정사횡은 정사준의 동생으로 자는 여인(汝仁)이다. 임진왜란 초 의주로 조카인 정빈과 함께 곡식 1,000여 석을 운반하였고, 정유재란 때에도 군량을 모으는 데 큰 공을 세웠다. 후일 안음현감 등을 지냈다.

정빈은 정사익의 아들로 자는 공백(恭伯), 호는 곡구(谷口)이다. 숙부인 정사횡과 함께 군량운반으로 공을 세웠다. 난 후에 전의·아산 등의 현감직을 역임하였다.

정선은 정사준의 아들로 자는 관중(寬中)이다. 무과에 급제하여 선전관이 되었고 임진왜란 때 선조의 의주피란에 시종하여 훈련원부정의 벼슬을 제수받기도 하였다.

